

생태관광의 도시—서란에 가보다



서란시 사하저수지의 동방백학



서란시 로도(鹭岛) 자작나무숲 여름 경치



하늘에서 굽어본 서란시 개원진



서란시 사하저수지의련꽃



서란시 세린하반의 풍경

최근년간 서란시 당위와 정부는 문화관광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고도로 중시하여 여러차례 전문연구토론회 및 좌담회를 소집하고 주관 지도자가 수차 팀을 이끌고 관광지에 내려가 문화관광제품의 질을 제고할 계획을 세웠으며 고찰팀을 이끌고 외지에 나가 참관하고 외지의 경험을 학습하고 참고했다.

풍부한 자연자원 우세와 생태 우세를 둘러싸고 서란은 전반 관광산업 공간에 대해 '1핵 3구 다점'의 문화관광 공간 구도를 구축했다.

관광지 주변의 인프라 건설을 추진하고 청송삼림공원, 서이얼하습지공원 도로 건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서란 남양 로씨야식 풍정촌, 신안 홍염곡 피서레저관광 브랜드를 건설하고 우세 자원을 통합하여 물놀이, 물고기 미식, 피서 등 관광 로선을 구축하였으며 생태레저, 농촌휴가, 친자연학, 미식 맛보기 등 각종 관광상품을 출시했다.

서란시는 송화강 일강 양안을 둘러싸고 새로운 문화관광업태를 구축, 송화강을 따라 강만리모래공원, 서이얼하습지공원 등 특색 캠프, 락원 관광상품을 내놓았다.

지난 7월초, 서란은 날씨가 개이고 공기가 맑았다.

서란 장립촌은 지난해 4월, 관광산업단지를 건설하고 현지 실정에 맞는 관광업 발전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관광산업단지는 29만평방미터의 부지에 화훼재배관광, 저수지레저낙시, 과일채취 등 대상을 주력으로 지난 3월부터 관광객을 접대하였다.

서란관광산업발전센터 시장보급과 과장 류문박의 소개에 따르면 서란 농촌관광 코스는 봉황산관광지, 삼련수전공원, 장완리모래터공원, 랑갑산저수지관광지, 삼도량농업포장원 등 여러 관광지를 연결했다.

서란은 관광산업의 발전에 있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뿐만 아니라 '좋은가 나쁜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욱 주력했다.

서란시당위 선전부 관련 책임자는 관광업계와 관광기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중점시간대에 전천후 관광구역 감독관리를 실시하여 관광시장의 평온과 질서를 확보한 데서 지난해 서란시 전체에서 단 한건의 관광 응급사고나 관광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고 관광 만족률이 100%에 달했다고 말했다.

만족스러운 서란 관광은 현지인들의 아름다운 생활의 중요한 콘텐츠가 되고 있다.

풍수인가는 서란시 개원진 오적촌에 자리잡고 있다.

67세의 마을 주민 류쌍이 2019년 이곳을 관광명소로 개발했을 때 눈앞에 있는 련못은 20여평방미터에 불과했다.

현재 련못은 8,000여평방미터로 넓어졌고 붕어와 잉어 등 다양한 물고기를 양식하고 있다. 가장 큰 물고기는 20여키로그램까지 자랐다.

낙시가 흥기하자 류쌍은 또 두곳에 양어장을 팠는데 각각 6,000여평방미터에 달한다.

류쌍의 소개에 따르면 현재 풍수인가의 부지면적은 40헥타르이고 삼림캠핑장 5대 수용, 40명이 숙박할 수 있으며 실외 식사 장소는 6곳으로 180명이 동시에 식사할 수 있다. 과일채소채집원 면적은 2,000평방미터, 백합꽃감상단지 면적은 3,000평방미터이다.

신안향 신안촌에 위치한 신초산장은 처음 건립될 때 원래 자리에 내칸 짜리 단층집만 있어 관광명소라고 할 수도 없었다.

현재는 건축면적이 초기의 60여평방미터에서 2,000여평방미터로 확대되었으며 43개의 방이 마련되어 240명이 묵을 수 있다.

명승지의 주요 종목은 전체 코스 10키로미터의 표류로 고공로프, 낙시 등 종목과 함께하며 매년 할빈시, 장춘시, 길림시 등지에서 온 연인원 약 4만명의 관광객을 접대하고 있다.

서란 남양 로씨야식 풍정촌 대상에는 로씨야 상품거리, 로씨야식 주택, 로씨야 맥주공장 등이 있다

구룡산삼림공원 책임자 류건중(57세)은 13년째 공원에서 일하고 있다.

걷기는 그가 매일 하는 일의 하나이다.

그는 "구룡산삼림공원은 서란 시민들의 향수이다. 구룡산이라는 이 청산과 그 아래 련못의 푸른 물을 잘 지켜주는 것이 바로 서란 사람들의 향수를 잘 지켜주는 것이다. 우리는 매일 17명의 청결원을 배치하여 위생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검사를 하려면 나는 매일 공원을 1만 5,000보 정도 걸어야 한다."

올해 '중국 관광의 날'이 다가오자 서란관광산업발전센터는 '서란의 행복한 생활 체험' 활동을 전개했다.

각종 문화 창작 관광상품이 많은 사랑을 받았다. 문화는 관광의 영혼이고 관광은 문화의 매개체이다.

서란 흰게사니거리 야시장은 올 여름에 나타나 서란 흰게사니 문화를 대대적으로 고양했다.

길대완(吉大碗) 음식 활동은 생동감 있게 전개되어 서란의 독특한 음식 문화를 보여주었다.

관광상품 경연대회에서 서란의 무형문화유산 전승인 기업어가 창작한 점도작품 <유유자적한 게사니>가 두각을 나타냈다.

'흰게사니'는 형태가 활발하고 귀엽고 부피가 매우 작아 휴대하기도, 진열하기도 편리하여 좋은 관광 선물이 되고 있다.

/강성일보

길림시조선족로인협회 홍색가요 콘서트 개최



일전, 길림시조선족로인협회는 홍색가요 콘서트를 개최했는데 전반 공연은 형식이 다양하고 내용이 풍부하여 관중들의 절찬을 받았다.

기약함주 <인민군대 당에 충성하네>, 대합창 <사도적수>, 무용 <부채춤> 등 20여개 종목이 차례로 무대에 등장했다.

길림시조선족로인협회 황정에 부회장에 따르면 이번 콘서트에 길림시조선족로인협회 18개 지회의 430명 회원이 참여했다.

홍색가요의 격정적인 선율은 관중들의 큰 박수갈채를 받았고 다채로운 종목들은 중국공산당의 위대한 공적과 휘황한 성과를 열정적으로 구가하고 적극적으로 진취적인 길림시조선족로인협회 회원들의 정신면모와 당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전체 회원들의 합창 <공산당이 없으면 새 중국도 없다네>로 홍색가요 콘서트는 화려한 막을 내렸다. / 문창호특약기자, 차영국기자

서란 흰게사니산업단지 주체공사 완공



일전, 서란시 흰게사니산업단지 주체공사가 완공되어 내부 장식 단계에 들어섰다.

8월말까지 서란시 흰게사니산업단지 흰게사니 도축 생산라인이 완공돼 조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란시 흰게사니산업단지는 서란시 중점 프로젝트의 하나로써 총 투자액이 14억 2,000만원, 부지면적이 34만 500평방미터이며 흰게사

니사료생산가공구역, 패딩류생산가공구역, 저온물류구역과 단지동력센터 등 8대 구역으로 나뉘는데 흰게사니 도축, 흰게사니고기 심층가공, 사료생산, 패딩가공과 물류운수 등 기능을 포함한다.

단지가 전면적으로 가동된 후 연간 생산액은 59억원, 납세액은 3억 1,000만원 되며 근 2만명의 취업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 강성일보

반석 보산향

소장거리 개장으로 육우 거래사를 뚫어

일전, 반석시차조농업유한회사의 반석 소장거리 개장(开集)식이 보산향에서 거행되었다.

최근년간 반석시는 '홍색인도, 녹색발전' 리념을 견지하고 '세가지 틀 어주기, 두가지 보장, 두가지 향상' 사업 구상에 따라 현역 경제의 고품질 발전으로 농촌산업의 줄기찬 호전을 이끌었다.

전원(田园)종합체 프로젝트의 중요한 분야로서 반석 소장거리의 개장 및 운영은 반석, 화전, 매하구, 동풍, 이통의 육우 거래사를 성공적으로 뚫었는바 이는 반석 육우의 전반 산업사슬의 발전이 관건적인 한걸음을 내디뎠음을 표시한다.

앞으로 반석은 계속 기업의 발전

에 보다 나은 량질의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부와 기업 쌍방의 협력 교류가 더 큰 결실을 맺도록 추동하게 된다.

알아본 데 따르면 반석 소장거리는 보산향 차가촌 길목과 202국도 교차점에 위치해있으며 부지면적이 8헥타르로 8,000마리의 육우를 수용하여 동시에 거래를 진행할 수 있으며 관리가 정교적이고 거래가 무료이며 숙박과 음식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장거리의 개장 및 운영은 반석시 육우산업의 발전을 한층 더 추진하고 향촌 진흥을 추진함과 아울러 농민들의 소득 증가와 치부에 새로운 강력한 버팀목을 제공하였다.

/강성일보